

논전 3. 기업의 농업 진출과 수출산업화

사회: 김동환(신유통연구원 원장/안양대 교수)

토/론/요/지

논전 3. 기업의 농업 진출과 수출산업화

과거 동부팜한농 사태 및 최근 LG CNS 사태를 겪으면서 기업의 농업 참여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처럼 논점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농정 이슈도 많지 않음.

찬성 측 발표자인 박병원 회장은 우리 농업에 있어 부족한 역량 즉 자본, 기술, 경영 및 마케팅 능력, 브랜드 파워 등을 외부 기업으로부터 활용해서 농업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농업보호론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 아울러 찬성 측 토론자로 김태곤 박사는 일본의 사례를 들어 농업, 농촌의 활력과 고용 창출을 위해 기업의 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나 기업의 철수 시 파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음.

반대 논리는 기업의 농업 참여로 중소농이 피해를 보고 결국 소비자가 피해를 본다는 것임. 반대측 발표자인 장상환 교수는 자본주의적 기업농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점과 과잉공급으로 인한 시장 교란 등의 이유로 기업의 농업 진출을 반대하고 있음. 반대측 토론자인 강용 회장도 대기업의 농업 참여가 기존 농업인에 막대한 피해를 준다고 주장하였음.

기업의 농업 참여는 이처럼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 실제 허용 여부는 농업, 농촌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파악한 후 지역별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농가 피해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존 농업인 피해 방지 혹은 보상 대책이 확실히 모색되어야 할 것임. 기업과 농업 간 상생모델로서 기업은 밸류체인 상 유통, 가공, 수출 등에 참여하고, 생산은 농업인이 맡는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이 경우에도 농가의 기업 예속 문제 등이 공정거래 차원에서 강력히 규제되어야 할 것임.